

깊어지는 갈등의 골...우려 커지는 호남민심

뉴스초점 - 민주당 경선 일정 논란 확산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선 경선 일정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당내에서는 긴장감 고조와 함께 파국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호남 민심은 경선 일정을 둘러싼 민주당의 갈등 양상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정권재창출에 대한 절박감과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호남만 다시 '정치적 섬'으로 고립되지 않느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단, 민주당에선 경선 일정 갈등 국면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송영길 대표가 "주자들 동의가 없으면 변경이 어렵다"며 현행 일정에 무게를 실자, '경선연기파'는 최고의결기구인 당무위 차원의

송영길 "동의 없이 연기 어렵다"

경선 연기파 당무위 소집 요구

이재명측 "친위 쿠데타" 강력 반발

호남민심 "정신 못차려" 비판 여론

부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경선 일정 고수를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는 당무위 개최는 당헌을 짓밟는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라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일단, 송 대표로선 25일 최고위에서 내부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8명의 최고위원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강병원·김영배·전혜숙 최고위원은 '경선 연기'를, 김용민·백혜련·이동학 최고위원은 '현행 일정'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송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경선 일정 고수 쪽으로 기운 상황이라서 최고위에서 경선이 연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25일 보고될 대선경선기획단의 기획안도 당헌에 기초해 작성된다. 특히, 경선 일정 결정이 당무위로 가게 된다면 송 대표의 리더십도 상처를 입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흐름에 맞서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 측은 당무위 소집 요구를 하고 있다. 당무위원 78명의 인적구성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직 기반이 강한 경선연기파가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지난 의총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확산해 나타난 바 있다. 그러면서 특별당규 제21조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선관위 심의를 거쳐 당무위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된 점을 당무위 개최의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중심으로 하는 경선 일정 고수파는 당무위 개최론에 대해 '파국'으로 가자거나 며 반발하고 있다. 원칙을 버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대선을 앞두고 민심의 이반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당내 분열상만 보이며 정권재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야기다. 당무위가 개최된다 해도 경선 일정 변경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당내 일각에서는 경선 일정을 한 달 정도 연기하는 절충안도 제기되고 있다. 예비경선 기간을 충분히 가진 뒤, 9월 말부터 지역별 순회 경선을 시작,

10월 초순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자는 것이다. 9월 9일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결국 원칙을 버리는 주장'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러한 민주당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호남 민심 저변에서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비판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집권 여당이 시대를 위한 결집과 미래를 위한 헌신의 정치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조속히 경선 일정을 둘러싼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와 결집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한반도 평화 위한 마지막 시도" 문 대통령, 타임지 7월 표지 모델

화상 인터뷰 "시간 얼마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주간지 '타임'의 표지에 실렸다. 2017년 5월 이후 약 4년 2개월 만이다.

타임은 2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 대통령의 사진과 인터뷰가 담긴 7월판을 공개했다. 청와대 측은 "현재로서는 아시아판 등에서 표지에 실릴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표지 사진에는 '마지막 제안'이라는 제목이 붙었으며, 관련 기사는 '문 대통령이 조국을 치유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에 나선다'는 제목 아래 향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전망을 담고 있다.

기사는 문 대통령 당선 이후 한반도 긴장 상황을 거쳐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으나, 이후 2019년 '하노이 노딜'로 북미협상이 교착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등 그동안 롤러코스터를 탔던 한반도 평화 협상 과정이 상세히 소개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갖는 등 평화 프로세스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힘쓰고 있지만, 당장 내년 3월 한국에서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고 타임은 진단했다.

문 대통령 역시 인터뷰에서 "저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안다"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는 매우 깨지기 쉬운 평화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정직하고 열정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고 있다" 등의 평가를 했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자녀들이 핵을 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언급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타임(TIME)지 표지 촬영과 화상인터뷰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타임지 표지.

었다. 타임은 국제 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이 여전하다는 점, 한국의 정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 문 대통령이 남북 백신 협력을 꺼내 들기는 했으나 상황을 타개할 독자적 아이디어는 마땅치 않다는 분석 등을 실었다.

한편 타임은 한국에서 대선이 열린 지난 2017년 5월에도 '협상가(the negotiator)'라는 제목이 달린 문 대통령의 사진을 아시아판 표지에 게재한 바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하늘길 열린 무안~김포...신규노선 취항

무안~김포 간 하늘길을 연결하는 '하이어(Hi-Air)'의 신규 노선 취항식이 24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렸다. 소형항공사인 하이어는 24일 무안~김포 노선 첫 취항을 시작으로 주 13차례 운항한다. 7월 1일부터는 무안~제주 노선을 주 6차례 추가 운항한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올 장마 늦어진다...4년만에 7월에 시작

내주까지 곳곳 소나기

매년 6월 말부터 시작되던 장마가 올해는 7월부터 시작해 '늦은 장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장마시작은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24일 광주지방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주 초반까지 지도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지 못하면서 남쪽에 형성된 정체전선이 북상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전남의 평년 장마 시작일은 6월 23일, 중부지방은 6월25일이지만 이번 장마는 일주일 이상 늦

어지는 셈이다. 7월에 시작하는 늦은 장마는 최근 30년 동안 3번뿐이었다.

다만 6월 말까지 장마와 같은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초반까지 기압골의 형태가 유지되면서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광주와 전남은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전망되고, 전남북부를 중심으로 저녁에 곳에 따라 산발적으로 5~2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26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광주와 전남 북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5일 낮최고기온은 25~30도가 되고 26일

아침최저기온은 18~21도, 낮최고기온은 25~30도로 분포되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동시베리아 지역에 기압능 발달로 인해 우리나라 북쪽에 상층 찬 공기가 위치해 장마가 평년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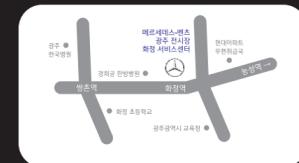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Mercedes-AMG GLC & GLC Coupé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Mercedes-AMG를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4-0001 & 확장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종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안구 담양동대로 516(수완동)
호주 서비스센터 (062)942-2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매곡로 609(매곡동) 2층(호주센터)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9 광주광역시 광안구 영암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정비 및 등급
Mercedes-AMG GLC 43 4MATIC (배기량 2,996cc, 공차중량 1,955kg, 지동9단), 복합연비 8.3km/ℓ, 도심연비 7.5km/ℓ, 고속도연비 9.6km/ℓ, 5단급, 복합CO₂ 배출량 212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운행 연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형이외에는 국내 시판과 다를 수 있습니다.